

고흥군 교육발전특구, '배움이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인재 키운다

특화산업 연계 교육·체험형 지원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강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5년 8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된 이후, '세계를 품은 배움, 우주로 향한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여건과 특화산업을 반영한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특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2028년까지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지방비와 교육청 예산 등 총 127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특구 교육분야 세부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돌봄·진로·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특화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민·관·산·학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는 교육→취·창업→정주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특구 운영 전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고흥군의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향은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우주항공·드론·스마트팜 중심의 인재 양성 특화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돌봄·평생학습을 결합한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우주항공 및 드론 분야에서는 나로우주센터,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고흥드론센터 등 우주항공 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 탐색과 체험형 교육을 확산하고,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국립순천대 그린스마트팜고용캠퍼스와 연계한 실습·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흥우주탐험단' 프로젝트는 중·고교 연계 우주항공 교육, 우주항공 기업



탐방, 대학 진로체험 캠프, 우주항공산업 선진국 견학 등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우주항공 분야 진로 선택을 유도하고 글로벌 우주항공 과학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다.

또한, 돌봄 중심 교육·문화 인프라인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역자원 연계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가족 체류형 '농산어

촌 유학마을 운영' 등 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성장 지원으로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흥군은 배움이 정주로 이어지는 미래산업 교육 도시로서의 여건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미래 사회를 이끄는 혁신형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나주시, 2025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설명회

어학연수 참가 학생·학부모 60여 명 대상 연수 안내

전라남도 나주시가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과 학부모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동신대에서 2025 미국 어학연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어학연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어학연수 전반에 대한 설명과 준비 사항 안내, 전년도에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선생님과 학생들이 경험한 홈스테이와 스쿨링의 유용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참가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어서 모임을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미국 연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주시가 지원하는 이번 미국 어학연수는 오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나주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8명이 미국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면서 정규수업 참여하며 외국어 역량 강화와 문화 체험, 현지 적응력을 높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방식이다.

또 명문대학을 탐방하는 등 미국 문화를 현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 혼자 보내는 데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미국에서 현지 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아이가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은 이달 12일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대 12%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군민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받을 수 있어 총 12%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6월까지 특별 할인 시행

결제 시 2% 추가 적립... 최대 12% 혜택으로 민생경제 활력 기대

적립된 캐시백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애플리케이션 내 '캐시백 ON/OFF' 기능을 통해 활성화되며, 이용자가 'ON'으로 설정할 경우 이후 결제 시 적립금이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산한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창구를 방문

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비대면 발급도 가능하다. 군은 카드형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해 더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성사랑상품권은 군민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민생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된다. 이번 카드형 추가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은 할인을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양시, 전남관광진흥기금 용자 신청 접수

이달 26일까지 신청 접수... 심사 후 대상자·용자금액 확정

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관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 1.0%의 저금리로 총 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관광시설 확충과 운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광 기반 시설 확충과 민간 관광사업 활성화를 목표로한다. 용자 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유람선업 ▲여행업 ▲관광체험시설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다.

용자 한도는 업종과 용도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이며, 상환

조건은 ▲신축은 4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중축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용자 취급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등 업종별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광양시 관광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시설자금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운영자금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용자 취급 은행은 광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 분·지점이며,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은 광주·전남 지역에 한해 가능하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광군, 귀농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영광군은 2월 10일까지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관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2026년 귀농지원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실제 거주하는 노후 농가주택의 내부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를 선정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50%를 지원한다.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은 농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등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를 선정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영광군 전입 5년

이하 귀농인으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의 주거안정과 영농 창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부사업내역 및 신청서류는 영광군 대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로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350-5576, 4993, 5574)으로 하면 된다.

영광/이현식 기자

생활 속 불편 민원, 카카오톡 '일사천리 순천'으로 바로 해결

절차는 간단, 처리는 신속하게 비대면 온라인 민원 창구 정착

순천시 카카오톡 기반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일사천리 순천'이 올해로 운영 4년 차를 맞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대표적인 비대면 온라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일사천리 순천'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즉시 접수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스마트 민원 서비스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로 연결돼 처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처리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 공원 및 체육시설 보수, 도로·교통 불편, 각종 민원 신고 등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에 강점을 보이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가 주를 이루어 평균 처리 기간이 7일 내외로 소요되고,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일사천리 순천' 운영 이후에는 단순

민원은 당일 처리, 복합 민원은 5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평균 처리 기간을 3일 수준으로 단축하며 민원 처리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현재 '일사천리 순천' 가입자 수는 3,79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44건의 민원을 처리해 생활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으로 바로 민원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줘 편리하다",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방식으로 행정 접근성을 높인 것이 '일사천리 순천'의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시간과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